

남녀 대학생의 의복 소비생활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othing Consumption Pattern and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교수 권수애
부교수 최종명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

Professor : Kweon, Soo Ae

Associate Professor : Choi, Jong M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consumption pattern and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509 subjects were surveyed during the period of 2002, for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LSD), χ^2 -test were used by SPSS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ollowing;

Number of clothing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income, and major. Female students had more clothes than male students, but female students was not satisfied with thier number of clothing.

University students spend the money below one hundred thousandwon on the purchase of clothing and they depend upon their parents for the cost. Their resources of fashion imformation are display of shop. Clothing consumption patter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and female students purchased on sale more frequently than male students.

The needs of university students for formal wear was high. The reason for not wearing the clothes they

Corresponding Author: Kweon, Soo Ae,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8 Gaeshin-dong, Heungduk-gu, Cheongju, 361-763, Korea Tel: 82-43-261-2748 Fax: 82-43-261-2748 E-mail: sooae@cbnu.ac.kr

* 본 논문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활성화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hav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sex, male students din't wear their clothes for ragging or unsuitableness of size but female students din't wear because thier clothes were old fashion or they lose interests in thier clothes.

The tendency to have ethic, easycare and high quality clothing of female students was strong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It is necessary business develop high quality formal wear at a low price, made in practical textiles and activative designed skirts for university students.

주제어(Key Words): 의복수(number of clothing), 의복소비생활(clothing consumption pattern), 대학생(university students)

I. 서론

지난 20여 년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향상으로 가정에서의 피복비 관련 소비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양상을 보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 소비자들은 생활수준의 향상 및 여가생활의 증가, 의복의 캐주얼화와 패션화의 확산으로 피복비 소비지출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75년부터 1993년 동안 외의, 신발, 스웨터/셔츠가 차지하는 소비지출 비중이 전체 피복비 소비의 80~85%로 높으며, 이 기간동안 외의는 3.34배, 신발은 5.35배, 스웨터/셔츠는 3.13배의 증가율을 보여 피복소비 전체의 증가율 3.10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수진, 1996)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과 관련된 연구로 구자명, 이명희(1997)는 여대생의 유행몰입과 유명상표 선호도와외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의복 충동구매 차원과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혔고, 신혜원, 박재욱(1997)은 여대생의 자아조정 수준에 따른 상황별 자아이미지와 의복 선택요인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박광희, 윤성진(1994)은 남녀간 유행인지도와 의복비 지출을 비교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행인지도는 높았으나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비교연구로 김정원(1994)은 재미 아시아계와 한국 대학생간 의복행동의 비교 문화적 연구를 하였고, 이선재(1991)는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정명선(1984)은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하여 남녀 대학생을 비교 연구하였으며, 이명희(1993)는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희숙, 최종명(2001)은 최근 5년간의 대학생의 생활 및 의복소비생활 변화를 중심으로 남녀간 차이를 밝혔다. 이은희, 전경란(2001)은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성, 학년에 따라 의복관심도가 다르고 성, 학년, 전공, 의복 관심도는 장신구 착용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의 의생활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생의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원미숙, 강혜원, 1983; 이명희, 1983; 임숙자, 1992; 차진희, 김재숙, 1995)와 대학생의 의복의 이미지평가에 관한 연구(박소향, 김인숙, 1994; 박성은, 임숙자, 1995)등 주로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의복행동을 고찰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복소비 생활에 관한 연구는 남성이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미국 대학생과의 의복가치관이나 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다소 있으나, 대학생의 의복 종류별 소유수 및 소비생활과 만족도에 관한 남녀 차이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복착용기를 지난 대학생의 의복소비생활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반 성인들에 대한 비교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대학생들의 의생활 흐름과 의류소비변화를 파악하며 남녀 대학생간의 의복 소지수와 의복 소비생활의 차이를 분석하고 의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밝혀 대학생의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지도 자료와 청년을 대상

으로 한 의류산업 및 마케팅 측면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김경희·임숙자(1983)는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 착용 동기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전공별로 의복착용동기에 차이를 보여 장식성과 과시성 변인에서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월수입이 많고 부의 교육수준이 높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자녀일수록 의복의 장식성과 과시성에 대한 착용 동기가 높게 나타나 교육받은 상류층 자녀들의 올바른 의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유니섹스 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를 연구한 원미숙·강혜원(1983)은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색상의 비형식적이며, 안락감을 주는 캐주얼한 의복을 추구하며, 남·녀에게 공용되는 의복은 진(Jeans), 바지, 파카, 스웨터, 티셔츠 등이고 거의 모두 티셔츠 및 청바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자의 경우 개방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남학생은 유행에 관심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유행에 관심이 낮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유니섹스 의복행동 및 정숙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유행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고학년이 될수록 남자는 유행에 관심이 낮아지는 반면, 여자는 관심이 높아진다고 하여 남·녀 모두 고학년이 유행의 관심이 낮아진다는 강혜원(1979)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정명선(1984)은 정숙성의 정도에는 남·녀 대학생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학생들은 여학생보다 감각적, 경제적, 사회적, 이론적, 종교적 의복 가치 점수가 더 높았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실험적, 심미적, 정치적 의복가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의복의 정숙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심미적, 실험적, 정치적 의복가치와 상관되며, 여성의 의복이나 몸치장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 자신이 더 개방적 태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명희(1993)는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인은 성역할 정체감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미국인은 여성이 남성보다 화려한 이미지를 더 선호하며 한국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여성적인 이미지를 더 선호하고 한국 여성은 현대적인 이미지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의복이미지 선호도는 문화와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은 의복이미지 선호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광희·윤성준(1994)은 CBS 뉴스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라이프스타일이 남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레크레이션, 편의적, 외모에 신경을 쓰는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유행 인지도와 의복비 지출의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행 인지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고 레크레이션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남녀 모두 유행을 더 많이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여성이 의복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원(2001)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를 연구하였는데, 기성복이 안 맞을 경우 남녀 모두 남에게 주거나 안 입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의복의 종류별 맞춤새는 남녀 모두 상의가 하의보다 더 잘 맞았으며, 코트류를 제외한 재킷, 블라우스와 남방류, T셔츠류, 바지 등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맞춤새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다. 맞춤새에 관한 문제점이 가장 적은 의복은 남자용은 남방류였고, 여자용은 코트류였으며, 문제점이 가장 많았던 의복은 남·녀 모두 바지였다.

임은희·전경란(2001)은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선택, 착용, 습관 등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을 장신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성별, 학년, 전공은 장신구 착용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학년이 낮을수록 대학생들은 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장신구를 보고 구입 정보를 얻고 있었고 대학생은 장신구를 선택할 때 친구의 영향을 받았고, 주로 백화점에서 장신구를 구입하였으며,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신발, 시계, 모자 등 실용적인 장신구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학생의 의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측면에서 올바른 지도와 후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희숙·최종명(2001)은 2000년에 대학생의 의생활 및 의복소비 태도의 변화를 1995년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금보다 더 비싼 의복을 구입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전반적인 의생활의 남·녀 차이가 적어졌고 유니섹스 의복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변화를 보인다고 하였다. 의생활에 대한 자기평가에서 남녀 모두 정장류와 특별한 경우를 위한 옷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남학생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남학생의 의생활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하였다. 남학생의 의복 소지수가 증가하여 남·녀 차이가 적어졌으며, 여학생이 의복구매시 세일을 더 자주 이용하나 전반적인 소비태도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조사대상은 청주지역에 소재한 대학생으로서, 조사는 2002년 5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김희숙, 최종명, 2001; Lutzke 등, 1968)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관한 11문항, 계절별 각종 의류의 소유수와 만족도, 의복 종류별 구매장소와 할인구매 이용에 관한 문항, 의복 종류별 현재 소유한 의복의 사장이유 등 의복구매와 소비실태에 관한 60문항, 의생활에 대한 자기평가에 관한 25문항, 의복구입태도에 관한 13문항으로 총 10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의생활에 대한 자기평가와 의복구입태도에 관한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 1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자료처리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 509부를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결과분석은 SPSSWIN 10.1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의복 소지수와 의복 소비태도 및 의생활 평가 및 만족도, 의생활계획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남녀간의 차이는 t-test로, 인구통계학적 차이는 ANOVA와 사후검정으로 LSD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분포

조사대상 중 여학생은 67.2%이고, 학년별로는 1학년 40.0%, 2학년 35.6%, 3학년 14.1%, 4학년이 10%이었으며, 전공별로는 어문·사회계열 36.8%, 이학·공학계열 45.3%, 예술·체육계열 11.5%, 가정계열이 6.4%였다. 가정의 월 평균소득은 150~200만원(25.0%)과 200~250만원(21.0%)인 경우가 많았다. 형제·자매관계는 동성의 형제만 있는 경우가 39.2%이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44.2%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1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학생의 의복 소유와 만족도

1) 의복의 평균 소유수

대학생의 의복 소유에 대해 살펴보면(표 1), 상하한 별로 된 정장인 슈트는 셔츠나 바지와 같은 캐주얼 의복과 달리 한 벌도 소유하지 않은 학생이 많았으며 재킷의 소유율도 여름용 소유율은 극히 낮았고 춘추용과 겨울용은 평균 1매 정도였다.

대학생들은 상의로서 주로 셔츠, 티셔츠, 스웨터류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셔츠와 티셔츠는 소유정도가 넓게 분포되었다. 특히 여름용 티셔츠 소유율이 모든 의복 중 가장 높았다. 겨울용 스웨터는 평균 3매 정도 소유하였고 1매에서 6매 이상까지 10~20%의 고른 분포를 보여 소유

수가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춘추용과 겨울용 점퍼의 소유율은 65~80%이었고 겨울용 코트는 평균 2매 이상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소유율은 춘추용이 평균 2.78매, 겨울용이 평균 2.33매이나 여름용은 없는 학생이 60% 이상이었는데 이는 데님으로 된 청바지가 여름에는 덥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청바지 이외의 춘추용 긴 바지는 평균 2.86매로 청바지보다 소유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에는 청바지보다 신축성이 좋고 계절에 적합한 직물의 바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용 반바지 소유율은 86.2%(평균 소유수 3.35매)로 나타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편리한 반바지를 많이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여학생의 원피스드레스 소유율은 매우 저조하였고, 스커트 소유는 모든 계절에 없는 학생이 절반 정도로 나타나 유니섹스 룩의 현상으로 스커트 대신 편리한 바지 착용이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의복 소유수의 남녀 차이

남녀 대학생의 계절별 평균 의복수를 비교한 결

과(표 2), 코트, 재킷, 셔츠, 티셔츠, 청바지 등의 소유율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 부분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겨울용 셔츠와 점퍼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소유율이 높았는데, 이는 의복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해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슈트와 청바지 외의 긴바지 및 반바지는 계절에 관계없이 남녀 학생간에 소지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에 따른 의복 소지수의 차이가 점차 적어지고 특히 남학생의 의복 소지수가 증가하여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김희숙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여름에는 주로 티셔츠와 반바지, 봄/가을에는 셔츠, 티셔츠, 청바지를, 겨울에는 스웨터, 코트와 긴바지를 많이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 소유수의 차이

대학생의 의복 평균 소유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의복종류별로 차이를 보였다(표 3). 특히

<표 1> 대학생의 의복종류별 소유수

단위 : %

매수	코트			청바지			기타 긴바지			반바지			원피스(여)			스커트(여)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없다	61.6	96.5	82	18.5	62.9	49.3	14.8	45.2	31.5	89.5	13.8	93.2	81.3	66.7	89.2	41.8	56.4	50.9
1	20.6	1.9	27.2	16.1	18.6	17.7	12.8	19.6	18.6	2.5	4.9	2.3	10.8	18.7	7.3	26.0	19.6	20.8
2	13.6	1.0	28.5	26.8	11.5	16.9	26.4	19.4	22.5	3.5	20.8	2.5	4.7	8.8	3.5	16.7	14.0	12.3
3	3.1	0.4	19.0	17.7	2.9	7.6	21.9	8.9	12.6	1.9	24.7	0.8	2.6	3.8	-	8.5	6.7	9.9
4	1.0	0.2	9.1	8.8	0.8	3.7	13.4	3.9	8.3	1.0	18.4	0.6	0.3	0.6	-	3.2	1.8	2.9
5	-	-	4.7	5.4	1.2	1.6	6.0	2.1	3.7	0.8	11.8	0.6	0.3	0.9	-	2.6	0.9	2.3
6이상	0.2	-	3.4	6.7	2.1	3.2	4.7	0.9	2.8	0.8	5.6	-	-	0.6	-	1.2	0.6	0.9

매수	슈트			재킷			셔츠			티셔츠			스웨터			점퍼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춘추	여름	겨울
없다	40.6	77.9	56.9	35.1	87.4	56.1	18.1	37.5	54.4	20.4	14.8	37.5	83.4	84.7	20.4	37.1	90.3	21.9
1	35.5	17.1	28.0	28.0	8.7	22.9	10.7	17.3	14.0	4.5	1.7	5.6	14.4	6.8	14.2	29.5	6.6	34.6
2	18.1	3.5	10.5	23.7	3.1	13.8	22.1	23.7	15.7	19.6	4.3	15.5	21.4	4.3	18.9	22.9	2.1	25.4
3	4.3	1.0	4.1	7.8	0.6	2.9	21.2	9.9	6.4	16.7	7.2	14.2	13.4	2.3	17.5	7.2	0.6	11.7
4	1.2	0.2	0.6	3.5	0.2	2.1	13.4	4.7	3.9	10.3	9.1	8.2	5.8	0.6	12.4	1.6	0.2	5.2
5	0.4	0.4	-	1.4	-	1.9	7.4	3.3	2.9	13.2	19.0	9.1	4.9	1.0	6.6	1.2	0.2	0.6
6이상	-	-	-	0.6	-	0.2	7.2	3.8	2.8	15.4	38.5	10.0	6.8	0.4	10.1	0.6	-	0.4

경제적 조건인 월 평균 가계소득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의복 소유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전공과 이성친구 유무도 의복 소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2〉 의복 종류별 소유수의 남녀 차이

		봄/가을	여름	겨울
코트	남	0.34(.69)	0.00(.32)	1.53(1.27)
	여	0.75(1.04)	0.00(.37)	2.60(1.54)
	t값	-4.64***	-.23	-7.76***
슈트 (양복/투피스)	남	0.81(.82)	0.25(.57)	0.57(.74)
	여	0.96(1.02)	0.32(.71)	0.66(.92)
	t값	-1.60	-1.16	-1.02
재킷	남	0.86(1.16)	0.13(.45)	0.78(1.21)
	여	1.42(1.26)	0.20(.55)	0.79(1.13)
	t값	-4.88***	-1.37	-.13
블라우스 /셔츠	남	2.35(2.04)	1.62(2.02)	1.37(1.64)
	여	2.72(1.90)	1.54(1.71)	1.03(1.71)
	t값	-1.98*	.46	2.15*
티셔츠	남	2.97(2.40)	4.28(2.81)	2.11(2.19)
	여	3.32(2.62)	5.57(3.09)	2.47(2.64)
	t값	-1.44	-4.54***	-1.50
스웨터	남	1.46(1.75)	0.23(.74)	2.04(1.91)
	여	2.20(2.22)	0.38(1.11)	2.95(2.37)
	t값	-3.76***	-1.58	-4.32***
긴바지 (청바지 제외)	남	2.59(1.86)	1.17(1.49)	1.69(1.80)
	여	2.44(1.71)	1.19(1.39)	1.74(1.63)
	t값	.89	-.15	-.27
청바지	남	1.85(1.73)	0.60(1.17)	1.10(1.51)
	여	2.58(2.02)	0.83(1.52)	1.28(1.82)
	t값	-4.01***	-1.71	-1.12
반바지	남	0.33(1.13)	2.77(1.84)	0.20(.79)
	여	0.27(0.94)	3.01(1.80)	0.13(.56)
	t값	.64	-1.38	1.13
점퍼	남	1.10(1.34)	0.14(.54)	1.69(1.40)
	여	1.16(1.16)	0.15(.50)	1.40(1.15)
	t값	-.54	.05	2.55*
스커트(여)	여	1.19(1.42)	0.83(1.19)	1.05(1.43)
원피스(여)	여	0.32(0.81)	0.59(1.09)	0.16(0.64)

* p<0.5, ** p<0.01, *** p<0.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많은 슈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학생인 경우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스커트의 소유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학·공학계 학생의 슈트 소유수가 가장 적고 어문·사회계, 예체능계와 가정학계 학생의 순으로 슈트 소유수가 많았다. 청바지를 제외한 긴바지와 여학생의 스커트, 원피스드레스의 소유수도 이학·공학계 학생이 가장 적게 소유하였으며 이에 비해 예체능계와 가정계 학생이 많이 소유하였다.

청바지를 제외한 모든 의복 종류에서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소유수가 많았으며, 의복비 충당을 아르바이트로 하는 학생이 의복비를 용돈으로 충당하거나 부모님께 의존하는 학생보다 청바지의 소유율이 높았다.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슈트, 재킷, 바지, 스커트, 원피스드레스의 소유율이 높고, 형제가 있는 학생보다 외동인 학생이 슈트와 재킷의 소유율이 더 높았다.

4) 자신의 의복 소유수에 대한 만족도

자신이 소유한 의복의 소유수가 너무 부족하다에 1점, 지나치게 많다에 5점을 주어 의복 소유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모든 종류의 의복이 3점 이하로서 대체로 부족하다는 쪽으로 응답하였다. 김희숙, 최종명(2001)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보다 2000년에 전체적으로 대학생의 의복 소지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복 소유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유사하여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슈트의 수가 가장 부족하고 그 다음으로 재킷과 코트의 순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정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생들이 비교적 부족감을 덜 느끼는 의복은 티셔츠로 나타났고 다른 의복들은 모두 부족한 쪽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인 경우 특히 스커트와 원피스드레스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4계절 의복 소유수의 차이

		코트 M(SD)	슈트 M(SD)	재킷 M(SD)	블라우스/셔츠 M(SD)	티셔츠 M(SD)	스웨터 M(SD)
학년	1학년	2,68(2,09)	1,48(1,78)a#	2,08(2,29)	5,14(4,22)	10,34(6,34)	4,49(3,68)
	2학년	3,05(2,20)	1,81(1,92)ab	2,33(2,45)	5,50(4,49)	11,52(7,02)	5,35(4,63)
	3학년	3,07(1,70)	2,03(1,76)b	2,16(1,86)	5,34(4,68)	10,74(5,74)	5,14(3,67)
	4학년	3,25(2,11)	3,20(2,22)c	2,27(2,38)	5,08(3,37)	9,12(5,58)	5,10(4,39)
	F값	1,66	11,70***	,39	,26	,23	1,49
전공	어문·사회계열	2,90(2,10)	1,90(1,95)b	2,43(2,48)	5,44(4,34)	11,47(6,47)	4,76(3,59)a
	이학·공학계열	2,73(1,99)	1,46(1,63)a	1,93(1,96)	4,92(4,16)	10,05(6,15)	4,62(4,46)a
	예술·체육계열	3,45(2,33)	2,52(2,33)c	2,38(2,59)	6,17(5,36)	10,31(7,01)	6,09(3,95)b
	가정학계열	3,44(2,08)	2,81(2,05)c	2,50(2,54)	5,72(2,83)	12,22(6,70)	6,09(4,46)b
	F값	2,53	8,58***	2,06	1,56	2,33	2,93*
월평균 소득	15만원 이하	2,35(1,99)a	1,42(1,86)a	2,14(2,24)a	4,48(4,69)a	9,05(5,81)a	3,95(3,41)a
	15-200만원	2,61(1,95)ab	1,47(1,44)a	1,86(1,97)a	4,64(3,99)a	10,65(6,34)a	4,58(3,71)a
	201-250만원	2,68(1,88)ab	1,66(1,63)a	2,23(2,05)ab	5,30(3,27)a	10,31(5,33)a	4,47(3,19)a
	251-300만원	3,00(2,20)b	2,00(2,19)a	1,96(2,02)a	5,60(4,03)ab	10,62(6,47)a	4,92(3,70)a
	301만원 이상	3,69(2,13)c	2,80(2,70)b	2,84(3,04)b	6,51(5,06)b	12,63(7,19)b	6,19(4,64)b
	F값	6,17***	9,02***	2,77*	3,61**	3,91**	4,69**
월평균 의복비	5만원 미만	2,23(1,55)a	1,33(1,38)a	1,67(1,69)a	4,51(3,69)a	9,54(5,78)a	3,76(2,94)a
	5-10만원 미만	3,30(2,16)b	2,05(1,89)b	2,25(2,06)b	5,35(4,26)a	11,33(6,42)b	5,29(4,60)b
	10만원 이상	3,83(2,41)c	2,72(2,59)c	3,21(3,14)c	6,93(5,10)b	11,97(7,25)b	6,87(4,68)c
	F값	29,55***	22,13***	18,43***	12,32***	6,99**	24,50***
이성친구	유	3,28(2,24)	2,20(2,21)	2,54(2,70)	5,56(4,53)	11,20(6,83)	5,36(4,31)
	무	2,65(1,91)	1,58(1,63)	1,94(1,89)	5,12(4,14)	10,34(6,12)	4,64(3,94)
	t값	3,40**	3,63***	2,97**	1,14	1,49	1,96
형제	여(남)형제만	2,89(2,03)	1,59(1,58)a	2,00(2,24)a	5,71(4,71)	10,67(6,85)	5,04(4,62)
	남녀형제 혼합	2,97(2,45)	1,94(2,05)ab	2,21(2,23)a	4,93(4,03)	10,73(6,28)	4,84(3,83)
	외동	2,69(1,93)	2,66(2,64)b	3,34(2,92)b	6,17(3,88)	10,41(5,65)	5,34(3,23)
	F값	,28	4,61*	4,43*	2,56	,03	,27
		청바지 외 바지 M(SD)	청바지 M(SD)	반바지 M(SD)	점퍼 M(SD)	스커트(여) M(SD)	원피스 드레스(여) M(SD)
학년	1학년	4,96(3,49)	4,36(4,02)	3,50(2,04)	2,69(2,11)ab	2,22(3,13)a	0,80(2,38)
	2학년	5,71(3,71)	4,30(3,89)	3,35(2,08)	3,08(2,06)b	3,19(3,39)b	1,07(1,91)
	3학년	5,67(3,57)	4,23(3,29)	3,53(1,80)	2,70(2,12)ab	3,98(3,51)bc	1,48(1,43)
	4학년	5,71(3,89)	4,35(4,10)	2,73(2,00)	2,14(1,52)a	4,78(4,20)c	1,56(2,57)
	F값	1,71	,02	2,17	3,11*	7,01***	1,90
전공	어문·사회계열	5,61(3,74)b	4,32(4,04)	3,39(1,91)	2,91(2,12)	2,69(2,99)a	0,92(1,85)ab
	이학·공학계열	4,84(3,17)a	4,07(3,21)	3,28(2,02)	2,63(1,94)	2,50(2,82)a	0,74(1,47)a
	예술·체육계열	6,29(4,25)b	5,21(5,50)	3,57(2,36)	3,00(2,32)	4,00(3,96)b	1,55(1,93)bc
	가정학계열	5,91(4,16)ab	4,44(3,26)	3,50(1,93)	2,78(1,93)	5,72(5,34)c	2,28(4,34)c
	F값	3,45*	1,36	,39	,88	9,27***	5,52**

〈표 3〉 계속

		청바지 외 바지 M(SD)	청바지 M(SD)	반바지 M(SD)	점퍼 M(SD)	스커트(여) M(SD)	원피스 드레스(여) M(SD)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4.72(4.05)a	4.18(4.29)	2.98(2.14)a	2.38(2.00)a	2.60(2.72)a	0.81(1.25)a
	151-200 만원	4.87(3.21)a	3.93(3.54)	3.20(1.84)a	2.61(1.78)a	2.43(2.62)a	0.73(1.48)a
	201-250 만원	5.20(3.17)a	4.28(2.95)	3.32(2.15)a	2.70(1.87)a	2.60(3.37)a	0.83(1.30)a
	251-300 만원	5.55(3.57)ab	4.22(3.21)	3.48(1.80)ab	2.71(1.98)a	3.11(2.84)a	1.00(1.69)a
	301만원 이상	6.51(4.08)b	5.10(5.15)	3.95(2.16)b	3.63(2.53)b	4.42(4.81)b	2.00(3.77)b
	F값	3.78**	1.30	3.06*	5.23***	3.87**	4.00**
월평균 의복비	5만원 미만	4.50(3.11)a	3.71(3.18)a	3.02(1.98)a	2.31(1.82)a	1.95(2.57)a	0.52(0.97)a
	5-10만원 미만	5.82(3.76)a	4.58(4.04)b	3.44(1.81)b	2.91(1.75)b	3.51(3.21)b	1.10(1.93)b
	10만원 이상	6.67(4.03)b	5.25(4.64)b	3.96(2.24)c	3.50(2.43)c	4.54(4.53)c	1.93(3.23)c
		F값	15.93***	6.67**	8.44***	14.55***	17.04***
의복비 충당방법	용돈	5.28(2.34)	4.01(3.68)a	3.19(2.03)	2.68(1.90)	3.02(3.44)	1.04(1.96)
	아르바이트	5.98(4.78)	5.42(4.98)b	3.47(2.06)	2.60(2.34)	2.32(2.32)	0.71(1.16)
	부모님께 의존	5.16(3.24)	4.03(3.28)a	3.44(2.01)	2.91(2.04)	3.29(3.74)	1.14(2.38)
		F값	1.93	5.45**	.87	1.09	1.92
이성친구 유무	유	5.96(4.19)	4.87(4.51)	3.56(2.10)	2.87(2.23)	3.81(3.86)	1.49(2.74)
	무	4.96(3.07)	3.90(3.23)	3.23(1.95)	2.72(1.92)	2.47(3.03)	0.72(1.41)
		t값	3.09**	2.83**	1.80	.81	3.57***

* p<0.5, ** p<0.01, *** p<0.001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슈트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소유하면서도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여학생의 정장 소유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청바지 외 바지, 반바지, 점퍼는 더 적게 소유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여전히 여학생이 캐주얼 의복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들은 대체로 남학생보다 의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남학생보다 의생활 만족도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여학생의 경우 의복의 소유수와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인 의생활의 남녀 차이가 적어져서 유니섹스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데 강혜원(1983)의 연구에서 유니섹스 의복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좀 더 널리 받아들여지며 남학생은 유니섹스 의복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것(차진희, 김재숙 1995)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은 유니섹스 의복에 대해 더 관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전형적인 여성성을 나타

〈표 4〉 성별에 따른 의복 소유수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

	남 M(SD)	여 M(SD)	계 M(SD)	t-value
코트	2.23(.79)	2.34(.80)	2.31(.79)	-1.43
슈트	2.06(.78)	1.87(.77)	1.94(.78)	2.46*
재킷	2.21(.78)	2.20(.79)	2.20(.79)	.13
블라우스/셔츠	2.66(.75)	2.61(.78)	2.63(.77)	.71
티셔츠	2.96(.72)	2.96(.82)	2.96(.79)	.02
스웨터	2.63(.80)	2.65(.77)	2.65(.78)	-.29
청바지와 긴바지	2.73(.72)	2.48(.72)	2.56(.73)	3.64***
청바지	2.56(.83)	2.62(.73)	2.61(.77)	-.72
반바지	2.81(.79)	2.65(.70)	2.69(.74)	2.29*
점퍼	2.52(.69)	2.37(.71)	2.41(.71)	2.11*
스커트(여)	-	2.04(.90)		
원피스(여)	-	1.76(.84)		

* p<0.5, ** p<0.01, *** p<0.001

내는 의복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최근 패션의 경향이 여성적인 것과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의복소유에 대한 만족도

		코트	슈트(양복/투피스)	재킷	블라우스/셔츠	티셔츠	스웨터
전공	어문·사회계열	2.29(.82)	1.94(.75)	2.24(.75)	2.61(.77)	2.92(.82)	2.64(.79)
	이학·공학계열	2.32(.76)	1.92(.80)	2.18(.81)	2.63(.75)	2.92(.73)	2.62(.69)
	예술·체육계열	2.40(.77)	2.05(.81)	2.21(.75)	2.69(.82)	3.14(.83)	2.90(.91)
	가정학계열	2.06(.91)	1.81(.74)	2.16(.88)	2.66(.75)	3.19(.86)	2.53(.92)
	F값	1.31	.73	.25	.16	2.29	2.33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2.11(.78)a #	1.87(.76)	2.16(.81)	2.56(.75)	2.86(.73)ab	2.53(.76)
	151-200 만원	2.16(.68)a	1.84(.79)	2.14(.73)	2.48(.79)	2.80(.76)a	2.54(.72)
	201-250 만원	2.27(.76)ab	1.86(.73)	2.33(.81)	2.65(.68)	2.94(.74)ab	2.62(.77)
	251-300 만원	2.42(.85)bc	2.06(.78)	2.04(.73)	2.64(.74)	3.06(.75)bc	2.68(.69)
	301만원 이상	2.62(.83)c	2.10(.82)	2.32(.86)	2.76(.81)	3.16(.89)c	2.82(.91)
F값	6.65***	2.23	2.10	1.91	3.49**	2.10	
월평균 의복비	5만원 미만	2.13(.77)a	1.84(.77)a	2.11(.81)a	2.52(.76)a	2.84(.75)a	2.52(.77)a
	5-10만원 미만	2.39(.75)b	1.98(.75)ab	2.27(.73)b	2.65(.77)a	2.97(.77)a	2.67(.76)a
	10만원 이상	2.52(.77)b	2.07(.80)b	2.30(.73)b	2.85(.73)b	3.18(.85)b	2.88(.78)b
	F값	11.13***	3.45*	3.19*	6.93**	7.01**	8.06***
의복비 충당방법	용돈	2.25(.80)	1.93(.77)	2.16(.74)	2.58(.68)	2.84(.77)	2.59(.68)
	아르바이트	2.22(.80)	1.91(.75)	2.29(.77)	2.55(.87)	2.96(.84)	2.54(.75)
	부모님께 의존	2.37(.78)	1.94(.80)	2.18(.80)	2.69(.77)	3.02(.76)	2.73(.84)
	F값	1.73	.05	1.01	1.76	2.67	2.66
		바지(청바지 제외)	청바지	반바지	점퍼	스커트(여)	원피스드레스(여)
전공	어문·사회계열	2.58(.78)	2.68(.78)	2.69(.74)	2.45(.70)	1.95(.88)a	1.74(.80)ab
	이학·공학계열	2.54(.68)	2.55(.68)	2.74(.71)	2.40(.68)	1.97(.88)a	1.65(.81)a
	예술·체육계열	2.72(.67)	2.64(.87)	2.67(.73)	2.50(.73)	2.34(1.07)b	2.00(.97)b
	가정학계열	2.38(.87)	2.53(.92)	2.63(.75)	2.34(.83)	2.36(.83)b	2.04(.92)b
	F값	1.81	1.12	.37	.52	3.27*	2.79*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2.41(.75)a	2.56(.80)	2.51(.77)	2.25(.70)a	2.06(.92)	1.82(.85)
	151-200 만원	2.47(.65)ab	2.54(.77)	2.75(.71)	2.42(.66)a	2.00(.90)	1.70(.91)
	201-250 만원	2.60(.68)abc	2.63(.70)	2.69(.68)	2.43(.66)ab	1.88(.91)	1.63(.76)
	251-300 만원	2.70(.68)c	2.76(.66)	2.86(.74)	2.40(.66)ab	2.05(.75)	1.79(.81)
	301만원 이상	2.67(.85)bc	2.57(.87)	2.71(.81)	2.62(.82)b	2.22(1.08)	1.91(.89)
F값	2.69*	1.16	2.37	3.10*	1.05	.98	
월평균 의복비	5만원 미만	2.43(.71)a	2.50(.74)a	2.65(.73)	2.31(.66)a	1.84(.84)a	1.60(.80)a
	5-10만원 미만	2.60(.73)b	2.70(.77)b	2.72(.76)	2.46(.72)b	2.07(.93)b	1.74(.85)a
	10만원 이상	2.78(.71)b	2.67(.78)ab	2.74(.68)	2.60(.73)b	2.36(.91)c	2.03(.82)b
	F값	9.24***	3.92*	.67	6.80**	8.53***	6.10**
의복비 충당방법	용돈	2.50(.68)	2.47(.72)a	2.56(.69)a	2.29(.70)a	1.89(.83)	1.70(.78)
	아르바이트	2.50(.75)	2.63(.71)ab	2.73(.75)ab	2.38(.68)ab	2.00(.82)	1.75(.84)
	부모님께 의존	2.62(.75)	2.67(.80)b	2.78(.74)b	2.52(.70)b	2.15(.98)	1.79(.88)
	F값	1.60	3.45*	4.07*	5.44**	2.48	.38

* p<0.5, ** p<0.01, *** p<0.001

서로 다른 문자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복 소유에 대한 만족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와 가정계 여학생이 다른 전공의 여학생보다 스커트와 원피스드레스의 소유율이 높아 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의복비를 자신이 해결하기보다 부모님께 의존하는 학생일수록 의복 소유수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여 현재의 의복소유 정도와 소유만족도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대학생의 의복 소비태도

1) 의복비와 정보원 이용

대학생의 월 평균 의복 구입비는 5만원 미만인 경우가 48.0%로 가장 많고 5~10만원 미만이 30.7%로 대다수의 학생이 월 평균 10만원 미만의 의복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비의 조달은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가 49.1%로 가장 많고 자신의 용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31.2%,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경우는 19.7% 정도로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비 지출 규모와 의복비 충당방법은 남·녀간 차이

가 없어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없다고 한 박광희(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이 이용하는 정보원은 상점의 진열장(46.6%)이 가장 많고 친구(22.1%), 패션잡지(19.1%)의 순으로, 패션광고(8.6%)와 가족(3.6%)의 이용율은 매우 낮았는데 대학생들이 소비자주도적 정보원이나 중립적 정보원보다 마케터주도적 정보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정창진(1986), 박옥환(1992), 임은희·전경란(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용하는 정보원의 종류는 남·녀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의복구매장소

의복구매장소를 조사한 결과(표 6), 전문매장이나 체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43.4%로 가장 높고 상설할인매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32.6%,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12.4%로 나타났으며 재래시장이나 동네양품점의 이용도는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20대 이상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지혜경, 1994)에서 의류구매시 백화점 이용율이 50% 정도로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서 백화점 이용자의 구매가격이 20만원대 이상이었던 지혜경(1994) 연구결과와 같이 구매가격이 구매장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대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율은 매

<표 6> 의복 종류별 구매장소

n(%) 중복응답

	백화점	전문매장/ 체인점	상설 할인매장	재래시장	동네 양품점	통신판매 인터넷	기타	계
코트	145(29.1)	260(52.1)	72(14.4)	9(1.8)	1(0.2)	0(0.0)	12(2.4)	499(100.0)
슈트	89(20.1)	216(48.9)	98(22.2)	12(2.7)	1(0.2)	0(0.0)	26(5.9)	442(100.0)
재킷	58(12.6)	228(49.6)	129(28.0)	17(3.7)	3(0.7)	0(0.0)	25(5.4)	460(100.0)
블라우스/셔츠	40(8.2)	200(38.8)	192(39.2)	36(7.3)	2(0.4)	1(0.2)	19(3.9)	490(100.0)
티셔츠	36(7.2)	183(36.7)	212(42.5)	40(8.0)	4(0.8)	2(0.4)	22(4.4)	499(100.0)
스웨터	47(9.6)	214(43.7)	175(35.7)	28(5.7)	4(0.8)	4(0.8)	18(3.7)	490(100.0)
긴바지	36(7.2)	220(44.2)	183(36.7)	37(7.4)	3(0.6)	1(0.2)	18(3.6)	498(100.0)
청바지	36(7.3)	208(41.9)	191(38.5)	35(7.1)	2(0.4)	2(0.4)	22(4.4)	496(100.0)
반바지	31(6.3)	183(37.3)	205(41.8)	49(10.0)	4(0.8)	1(0.2)	17(3.5)	490(100.0)
점퍼	85(17.6)	239(49.6)	116(24.1)	24(5.0)	1(0.2)	1(0.2)	16(3.3)	482(100.0)
스커트(여)	31(11.3)	93(33.8)	98(35.6)	23(8.4)	2(0.7)	0(0.0)	28(10.2)	275(100.0)
원피스(여)	30(12.7)	82(34.7)	75(31.8)	18(7.6)	2(0.8)	1(0.4)	28(11.9)	236(100.0)
계	664(12.4)	2326(43.4)	1746(32.6)	328(6.1)	29(0.5)	13(0.2)	251(4.7)	5357(100.0)

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복구입시 통신판매나 인터넷 이용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복을 직접 보거나 입어보지 않고 구입했을 때의 위험지각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은 코트나 슈트 등의 고가품을 구매할 때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셔츠나 바지와 같은 단품을 구매할 때는 거의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고 대신 상설 할인매장을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의복 종류별로 살펴보면 코트나 슈트 등 의복관여도가 높은 품목은 다른 의류보다 백화점 이용율이 높고 티셔츠, 반바지 등 의복관여도가 비교적 낮고 캐주얼한 의복인 경우 상설할인매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설할인매장보다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지각이 낮고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구매장소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할인구매 이용정도

대학생들의 의복 구입시 할인구매 이용정도는 의복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여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10~42%,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39~64%,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12~32%로 나타났다.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류제품 할인구매에 대한 윤혜경, 김은영(2000)의 연구에서는 할인구매를 이용하여 구입한 의복의 소유율이 25%~75% 인 경우가 2/3를 차지하였고, 할인구매를 이용하는 의복 종류는 캐주얼 의류나 단품보다 정장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할인구매율이 낮은 것은 비교적 고가인 정장류보다 대학생들이 구매하기에 무리가 없는 캐주얼의류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코트, 슈트, 재킷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할인구매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가의 의류를 많이 소유하려 하다보니 한정된 비용으로 저렴한 할인구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티셔츠와 반바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할인구매 이용율이 낮았다.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와 원피스드레스를 구매할

<표 7> 의복 종류별 할인구매 이용 정도

		전혀 이용 안함	가끔 이용함	자주 이용함	계	χ^2
코트	남	34(21.0)	86(53.1)	42(25.9)	162(100.0)	11.54**
	여	34(10.0)	196(57.8)	109(32.2)	339(100.0)	
슈트	남	57(37.3)	63(41.2)	33(21.6)	153(100.0)	17.47***
	여	57(19.4)	166(56.5)	71(24.0)	294(100.0)	
재킷	남	40(26.0)	81(52.6)	33(21.4)	154(100.0)	8.07*
	여	48(15.6)	197(64.0)	63(20.5)	308(100.0)	
블라우스 /셔츠	남	48(30.0)	81(50.6)	31(19.4)	160(100.0)	.57
	여	94(29.1)	174(53.9)	55(17.0)	323(100.0)	
티셔츠	남	41(24.6)	84(50.3)	42(25.1)	167(100.0)	8.12*
	여	125(37.0)	136(40.2)	77(22.8)	338(100.0)	
스웨터	남	44(27.7)	81(50.9)	34(21.4)	159(100.0)	1.50
	여	101(29.9)	180(53.3)	57(16.9)	338(100.0)	
긴바지	남	47(29.0)	76(46.9)	39(24.1)	162(100.0)	5.05
	여	128(38.0)	150(44.5)	59(17.5)	337(100.0)	
청바지	남	46(28.2)	83(50.9)	34(20.9)	163(100.0)	5.93
	여	131(39.1)	150(44.8)	54(16.1)	335(100.0)	
반바지	남	48(30.2)	80(50.3)	31(19.5)	159(100.0)	7.22*
	여	140(42.3)	130(39.3)	61(18.4)	331(100.0)	
점퍼	남	37(23.1)	85(53.1)	38(23.8)	160(100.0)	1.84
	여	63(19.2)	195(59.5)	70(21.3)	328(100.0)	
스커트(여)		117(41.3)	131(46.3)	35(12.4)	283(100.0)	
원피스(여)		105(42.5)	106(42.9)	36(14.6)	247(100.0)	

* p<0.5, ** p<0.01, *** p<.001

때는 할인구매를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매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구매후의 경제적, 심리적 위험지각을 낮추기 위해 할인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4) 현재 소유한 의복을 소장하는 이유

대학생이 소유한 의복을 착용하지 않고 소장하는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표 8), 코트, 셔츠, 스웨터, 반바지를 입지 않는 이유는 남녀간 차이를 보였다. 소유한 코트를 입지 않는 이유로 유행이 지났거나 싫증이 나서 입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반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너

〈표 8〉 소유한 의복의 사장 이유

		싫증이 나서	유행이 지나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다른옷과 조화가 안되서	너무 납아서	기타	계	χ^2
코트	남	13(9.2)	37(26.1)	19(13.4)	33(23.2)	17(12.0)	23(16.2)	142(100.0)	30.95***
	여	68(21.2)	126(39.3)	17(5.3)	59(18.4)	17(5.3)	34(10.6)		
슈트 (양복/투피스)	남	14(11.1)	33(26.2)	19(15.1)	27(21.4)	6(4.8)	27(21.4)	126(100.0)	7.93
	여	45(16.7)	82(30.4)	37(13.7)	52(19.3)	3(1.1)	51(18.9)	270(100.0)	
재킷	남	26(19.8)	37(28.2)	13(9.9)	30(22.9)	7(5.3)	18(13.7)	131(100.0)	7.63
	여	51(17.4)	101(34.5)	34(11.6)	70(23.9)	4(1.4)	33(11.3)	293(100.0)	
블라우스/셔츠	남	19(14.1)	24(17.8)	13(9.6)	44(32.6)	18(13.3)	17(12.6)	135(100.0)	14.70*
	여	66(22.9)	81(28.1)	20(6.9)	71(24.7)	21(7.3)	29(10.1)	288(100.0)	
티셔츠	남	28(19.4)	30(20.8)	17(11.8)	24(16.7)	27(18.8)	18(12.5)	144(100.0)	11.06
	여	82(26.9)	76(24.9)	18(5.9)	35(11.5)	67(22.0)	27(8.9)	305(100.0)	
스웨터	남	23(16.9)	28(20.6)	21(15.4)	28(20.6)	16(11.8)	20(14.7)	136(100.0)	12.51*
	여	75(25.5)	66(22.4)	20(6.8)	48(16.3)	46(15.6)	39(13.3)	294(100.0)	
긴바지 (청바지 제외)	남	23(15.6)	24(16.3)	28(19.0)	35(23.8)	16(10.9)	21(14.3)	147(100.0)	4.67
	여	53(18.0)	57(19.3)	71(24.1)	56(19.0)	22(7.5)	36(12.2)	295(100.0)	
청바지	남	19(13.7)	25(18.0)	33(23.7)	24(17.3)	17(12.2)	21(29.6)	139(100.0)	7.27
	여	58(19.4)	57(19.1)	78(26.1)	31(10.4)	25(8.4)	50(16.7)	299(100.0)	
반바지	남	18(13.3)	30(22.2)	11(8.0)	31(23.0)	16(11.9)	29(21.5)	135(100.0)	18.32**
	여	63(21.8)	44(15.2)	52(18.0)	38(13.1)	26(9.0)	66(22.8)	289(100.0)	
점퍼	남	23(16.9)	44(32.4)	14(10.3)	25(18.4)	10(7.4)	20(14.7)	136(100.0)	7.33
	여	66(23.6)	93(33.2)	14(5.0)	47(16.8)	13(4.6)	47(16.8)	280(100.0)	
스커트(여)		34(13.9)	65(26.5)	32(13.1)	50(20.4)	3(1.2)	61(24.9)	245(100.0)	
원피스(여)		33(15.1)	58(26.6)	24(11.0)	31(14.2)	3(1.4)	69(31.7)	218(100.0)	

* p<0.05, ** p<0.01, *** p<0.001

무 납아서 입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현재 가지고 있는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지 않는 이유로 여학생은 싫증이 나서 또는 유행이 지나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은 반면, 남학생은 다른 옷과 조화가 안되어 또는 너무 납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실용적인 이유에서 의복을 사장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소유한 스웨터를 입지 않는 이유도 여학생은 싫증이 나서 입지 않는다고 한 학생이 많고 남학생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라는 학생이 많아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반바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지 않는 이유로는 여학생은 싫증이 나서, 사이즈가 맞지 않

아서라고 하였고 남학생은 유행이 지나서, 다른 옷과 조화가 안되어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아 다른 옷을 입지 않는 이유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학생이 소유한 스커트나 원피스드레스를 입지 않는 이유도 유행이 지나서 입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학생은 소유한 의복을 입지 않는 주된 이유가 유행이 지나거나 싫증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희숙, 최종명(2001)의 연구에서도 싫증이 났음의 항목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서 남·녀의 차이가 있었고 남녀 모두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적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의복이 낡으면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고 의복비 지출에 있어서

좀 더 비싼 의복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복을 구매하는 반면에 의복 착용기간은 더 짧고 고급 의복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인(김희숙, 최종명, 2001)것으로 생각된다.

4. 자신의 의생활 평가와 만족도

1) 성별에 따른 자신의 의생활 평가 차이

현재 의생활에 대한 자기평가를 살펴보면(표 9), 정장류가 부족하다와 특별한 경우를 위한 옷이 부족하다에 응답한 비율과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가 부족하다고 한 비율이 높아서 정장 및 특별한 용도를 위한 의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또 물려받은 의복이 많다는 안 입을 옷을 남에게 물려준다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아 의복의 물려입기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의생활에 대한 자기 평가는 남·녀간 차이를 보였는데 정장류, 특별한 경우 착용할 의복, 여성스러운 의복과 전반적으로 의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총동적으로 구매한 옷이 많고 한 계절에 옷이 편중되어 있으며 수는 많으나 입을 만한 옷이 없고, 입지 않는 옷들이 많다는 평가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총동구매한 옷이 많아 의복의 구매가 합리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의복 구입시 품질표시 라벨을 확인하거나 때와 장소에 맞추어 옷을 입을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아 여학

<표 9> 성별에 따른 의생활에 대한 자기 평가

문항	남	여	계	t값
정장류가 부족하다.	3.68(1.17)	3.92(1.12)	3.84(1.14)	-2.23*
의복종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3.23(.96)	3.36(.97)	3.32(.96)	-1.39
있는 옷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2.96(1.08)	3.01(1.06)	2.99(1.07)	-.48
색상이 다양하지 못하다	3.22(1.07)	3.19(1.03)	3.20(1.04)	.34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없다	3.23(1.01)	3.23(1.02)	3.23(1.01)	- .05
계획성 없이 의복을 구입하였다	2.84(1.19)	2.95(1.07)	2.91(1.11)	-1.03
특별한 경우를 위한 의복이 없다	3.31(1.28)	3.58(1.24)	3.49(1.26)	-2.23*
여성(남성)스러운 옷이 부족하다	2.71(1.08)	3.22(1.26)	3.06(1.23)	-4.41***
캠퍼스/캐주얼 웨어가 부족하다	2.51(1.13)	2.51(1.14)	2.52(1.14)	-.01
총동적으로 구매한 옷이 많다	2.78(1.31)	3.03(1.14)	2.95(1.20)	-2.21*
한 계절에만 편중되어 있다	2.82(1.16)	3.09(.95)	3.00(1.03)	-2.73**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많다	2.78(.98)	2.62(.95)	2.67(.96)	1.74
수는 많으나 입을만한 옷이 없다	2.91(1.05)	3.21(1.09)	3.12(1.09)	-2.91**
정해진 색상이 없이 다양하게 입는다	2.90(1.15)	2.95(1.04)	2.94(1.08)	-.50
너무 비싼 옷이 많다	2.44(1.12)	2.21(.98)	2.28(1.03)	2.39*
물려받은 옷이 많다	1.96(1.19)	1.88(1.08)	1.91(1.12)	.68
바지가 부족하다	2.78(1.13)	2.92(1.04)	2.87(1.07)	-1.40
때와 장소에 잘 맞추어 옷을 입는다	3.04(.94)	3.21(.79)	3.16(.85)	-2.06*
비슷한 디자인의 옷이 많다	3.31(.89)	3.38(.84)	3.36(.86)	-.86
입지 않는 옷들이 많다	3.09(1.08)	3.40(1.04)	3.30(1.06)	-3.03**
전반적으로 옷이 부족하다	3.20(1.01)	3.41(1.03)	3.34(1.02)	-2.19*
안 입을 옷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	2.41(1.29)	2.50(1.29)	2.47(1.29)	-.77
의복구입시 맞지 않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	2.60(1.21)	2.85(1.16)	2.77(1.18)	-2.18*
의복구입시 품질표시 라벨을 확인한다	2.70(1.30)	3.06(1.23)	2.95(1.27)	-2.99**
스커트가 부족하다(여학생)		3.80(1.27)		

* p<0.5, ** p<0.01, *** p<.001

생의 의복 관여가 높고 의복 활용에 관한 지식과 실천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의복 구입시 맞지 않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평가도 여학생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의복을 더 몸에 꼭 맞게 착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모두 정장류가 부족하다와 특별한 경우를 위한 옷이 부족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정장 및 특별한 용도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캠퍼스 이외의 교외활동 및 사회참여가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현재보다 정장 및 특별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는 스커트의 소유율이 낮아 스커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고,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스커트의 소유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의복구입태도

대학생들의 앞으로의 의복구입태도를 조사한 결과(표 10),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형이나 이미지에

어울리는 의복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높고 여러 가지로 조화시킬 수 있는 의복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많은데 비해 유행을 고려한다거나 비싸도 좋은 옷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계획성 있고 경제적인 의복구입태도를 보였다. 의복의 색상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색상을 정해 구입하거나 다양한 색상을 입겠다는 의견이 모두 높지 않아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적합하게 조화되는 몇 가지 색상의 범위에서 의복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의복구입태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남·녀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싸도 품질이 좋은 옷, 이미지에 어울리는 옷, 관리하기 편리한 옷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의복 구입시 품질표시를 확인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김희숙, 최종명(2001)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계획을 세워 여러 가지로 조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와 체형에 어울리는 의복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겠다고 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실용성 있는 구입을 계획하였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비싸더라도 좋은, 이미지에 어울리는 옷을 구입하겠다는 경향이 높으며 관리가 편리한 옷을 품질표시를 확인하여 구입하겠다는 경향이 높아 품질 높은 의

<표 10> 성별에 따른 의복구입태도의 차이

문항	남	여	계	t값
계획성 있는 구입을 하겠다	3.98(.99)	4.13(.82)	4.08(.88)	-1.77
부족한 옷 종류를 보충하겠다	4.05(.88)	4.07(.79)	4.06(.82)	-.24
여러가지로 조화시킬 수 있는 옷을 구입하겠다	4.16(.83)	4.26(.74)	4.23(.77)	-1.31
비싸더라도 좋은 옷을 구입하겠다	3.26(1.11)	3.64(.93)	3.51(1.00)	-4.06***
체형에 어울리는 의복을 구입하겠다	4.18(.92)	4.27(.73)	4.24(.79)	-1.11
기본 색상을 정해서 구입하겠다	3.37(1.06)	3.28(1.01)	3.31(1.02)	.89
실용적인 저렴한 가격의 옷을 구입하겠다	3.84(.96)	3.90(.85)	3.88(.89)	-.67
다양한 색상을 입겠다	3.32(1.06)	3.38(.96)	3.36(.99)	-.68
다양한 디자인을 입겠다	3.49(1.03)	3.45(.93)	3.46(.96)	.41
유행을 고려하겠다	3.40(1.08)	3.26(.99)	3.31(1.02)	1.48
이미지에 어울리는 옷을 구입하겠다	4.07(.89)	4.30(.68)	4.23(.76)	-3.28**
관리(세탁)가 편리한 옷을 구입하겠다	3.67(1.06)	3.91(.86)	3.83(.93)	-2.67**
의복구입시 품질표시를 확인하겠다	3.45(1.00)	3.82(.90)	3.70(.95)	-4.26***

* p<0.05, ** p<0.01, *** p<0.001

복을 구입하고 과학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들은 여름에는 주로 티셔츠와 반바지, 봄/가을에는 셔츠, 티셔츠, 청바지를, 겨울에는 스웨터, 코트와 긴바지를 많이 착용하였다. 월평균 가계 소득, 전공, 이성친구의 유무가 의복 소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의복 소유에 대한 남·녀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여학생이 의복 소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복 소유에 대한 만족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대부분의 대학생이 월평균 10만원 미만으로 의복비를 지출하고 의복비의 조달은 부모님께 의존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상점의 진열장을 주된 정보원으로 이용하였다. 의복구매장소는 의복 종류에 따라 다르며 할인구매 이용정도도 의복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복비 지출, 정보원 이용도, 구매장소 등은 남녀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할인구매 정도는 의복 종류에 따라 남녀간의 차이를 보였다.

3.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정장 및 특별한 용도를 위한 의복에 대한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고 아직도 의복의 물려입기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의생활에 대한 자기 평가는 남녀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충동구매나 한 계절에 편중된 의복구매를 하는 등 비합리적 의생활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소유한 의복을 사장하는 이유도 남녀간 차이를 보여 여학생은 싫증이 나거나 유행이 지나서 입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남학생은 치수가 맞지 않거나 낡아서와 같은 실용적인 이유로 입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4. 대학생의 의복구입태도를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의생활을 계획함을 알 수 있었고 의복구입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미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며 고품질의 의복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의복 소유수 및 의복 소비태도와 의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적어져서 남학생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의복 종류별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남녀가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의복구매시의 세일 이용정도와 소유에 대한 만족도, 의복의 사장이유이다. 대학생들도 의복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진 사회 현상의 변화를 수용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의복을 좀 더 많이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특히 정장류와 특별한 경우에 착용할 의복의 부족을 호소하므로 대학생의 의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서 캐주얼 의류 편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대로 학생 신분과 학내 활동을 고려한 정장류의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품질 좋은 의복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의류업체의 배려가 필요하며 여학생을 위해 활동적인 형태와 실용적인 소재의 스커트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합리적인 의생활 관리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연구대상의 거주 지역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의복소비태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구자명, 이명희(1997). 여대생의 의복 충동구매 차원과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리뷰학회지, 21(1), 35-45.
- 김경희, 임숙자(1983).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동기와 의 관계. 한국리뷰학회지, 7(2), 1-10.

- 김양원(2001). 우리나라 대학생의 기성복 맞춤새 정도와 불만족 실태. *한국생활과학회지*, 10(1), 93-100.
- 김정원(1994). 의복행동의 비교문화적 연구-재미 아시아계와 한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숙, 최종명(2001). 대학생의 의생활 및 의복 소비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0(3), 275-290.
- 박광희, 윤성준(1994). 유행인지도와 의복비지출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682-691.
- 박옥환(1992). 유행정보원 이용도, 의류광고 선호도와 유행선도력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은, 임숙자(1995). 의복의 적절성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생의 캠퍼스웨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264-277.
- 박소향, 김인숙(1994). 남자대학생의 여성복 이미지 평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2), 170-179.
- 원미숙, 강혜원, (1983). 유니섹스의복행동과 성역할과의 관계: 남, 녀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37-44.
- 윤혜경, 김은영(2000). 여성의 의류제품 할인구매에 대한 반응과 불평행동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9(4), 491-504.
-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 이명희(1983).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재(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2), 261-268.
- 이은숙, 박재옥(1997). 여대생의 자아조정 수준에 따른 상황별 자아이미지, 의복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7), 1205-1214.
- 이은희, 전경란(2001).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 과학회지*, 10(1), 113-126.
- 임숙자(1992). 여대생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의복 행동변인과 사회심리변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명선(1984). 남·여 대학생의 의복에 대한 정숙성과 의복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1), 85-94.
- 지혜경(1994). 의류제품의 구매과정에 나타난 소비자 불만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혜경, 이은영(1999).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비소비지출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3(5), 745-756.
- 차진희, 김재숙(1995). 성역할 개념, 의복 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5), 738-746.
- Latzke, A. & Hostetter, H.P. (1968). *The Wide World of Clothing*. New York : The Ronard Press Company.

(2002년 11월 22일 접수, 2003년 3월 26일 채택)